

# 통합진보당 창당 2년만에 존폐 기로

■ 법원,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선고 파장

정당해산심판 청구 이어 당 핵심 실형 '대악재'

민심 싸늘…광주·전남지역 진보 지방선거 위기감

법원이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통합민주당은 창당 2년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이어 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원의 실형 선고까지 겹치면서 경우에 따라 와해의 길을 걸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성과를 보일지 주목된다.

지난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통합해 탄생한 통합진보당은 지난해 4·11 총선에서 민주당과 연대를 통해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의석인 13석을 얻으며 원내 제3당으로 발돋움했다.

이 가운데 광주 서구 을과 순천에서 각각 당선된 오병운·김선동 의원은 나란히 원내 대표와 부대표를 맡는 등 호남 출신 의원들이 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앞서 2010년 지방선거과 보궐선거를 통해 전남도의회에 5명(비례포함)의 통합

진보당 소속 광역 의원이 탄생해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했다.

지난 2002년 1명의 전남도의원으로 출발했던 것을 감안하면 도의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됐으며, 민주당 일색이었던 도의회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로 새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도 받았다.

광주시의회도 지난 2010년 2명(비례포함)이 입성했으며, 광주 5개 기초의회에서 비후보로 등록하고, 현 지방의원들도 내년 지방선거 도전을 준비중이어서 이들의 선전이 주목된다. 만약 이들이 선전하지 못할 경우 당분간 침체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선 후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이 빚어지면서 위기가 시작됐고, 당 진상조사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대립하면서 당이 분열된 뒤 종북 논란을 일으키며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이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전남도의회

회 전중근 의원이 지난해 11월 전격 탈당하는 등 '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김선동 국회 최루탄 사건, 이석기 의원 논란 등의 잇단 악재를 바라보는 민심의 싸늘한 시선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오는 6·4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선전할지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통합진보당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이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현 지방의원들도 내년 지방선거 도전을 준비중이어서 이들의 선전이 주목된다. 만약 이들이 선전하지 못할 경우 당분간 침체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17일 이 의원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속자들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등 당 사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 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을 태운 호송차량이 법원을 나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광주 서을 지역위원장 임명 늦춰지나

지역 국회의원들 5명 신청 불구 분란 우려 보류 의견 전달

민주당이 임우진 전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섰으나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당분간 보류를 요청하는 문건을 중앙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김동철 의원은 "광주지역 국회의원 6명이 지방선거 전에 서구을 지역위원장 임명할 경우 당내 분란이 발생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문서로 작성해 김한길 대표와 노동래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그러나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4일 서구을 지역위원장 임명 보류를 요청하는 문건을 중앙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김동철 의원은 "광주지역 국회의원 6명이 지방선거 전에 서구을 지역위원장 임명할 경우 당내 분란이 발생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조성한 간척지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이

민주당 김승남(보성·고흥) 의원은 17일 "1991~2008년 조성된 고흥만 간척지의 매립이 2012년 준공 완료된 후, 일시경작이 이뤄져 왔고 올해에 농어촌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돼 임대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면서 "현재 생산량의 최대 24% 까지 부과하는 임대료를 10%대로 현실화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조성한 간척지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소득보전직접지

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가 10~20년 걸쳐

조성한 간척지 중 상당수는 국가사업으로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승남 "고흥만 간척지 임대료 10%대로 인하해야"

민주당 김승남(보성·고흥) 의원은 17일

"1991~2008년 조성된 고흥만 간척지의 매립이 2012년 준공 완료된 후, 일시경작이 이뤄져 왔고 올해에 농어촌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돼 임대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면서

"현재 생산량의 최대 24% 까지 부과하는 임대료를 10%대로 현실화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조성

한 간척지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소득보전직접지

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가 10~20년 걸쳐

조성한 간척지 중 상당수는 국가사업으로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 6·4 지방선거 현장

### 광역단체장

이용섭 "아이·부모·보육교사가 행복한 광주건설"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7일 "아이들에게는 질 높은 무상 보육을, 부모님들께는 아이 걱정 없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선생님들에게는 쳐우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보육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 유치원 연합회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자체에서 보육정책을 전면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국가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나 문제점 해결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며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교육 청과 산시 협의체 구축해 학교-학원-집으로 오가는 아동청소년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배움터 안전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초단체장

이춘문 "새정치연합 후보로 서구청장 출마"

이춘문 광주시의원은 17일 "관료행정의 벽을 넘어 소통과 참여의 가치 서구를 만들겠다"며 신당인 새정치연합 후보로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면 단체장의 올바른 철학과 역사의식, 민주적 소양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의 신명나는 자발적 참여와 공직사회의 헌력 있는 창의성을 보태 진정한 자치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지시와 통제의 관치행정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변화의 선두에 서겠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 이기도 한 이 의원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광주 서구의회 의원(재선)과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광주시의회에 입성해 상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장을 맡았었다.

진선기 "삶의 정치로 행복한 북구 만들겠다"

진선기 광주시의원은 17일 "삶의 정치를 통해 행복한 구민, 잘사는 북구를 만들겠다"며 새정치연합 광주 북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선 시의원, 전국 최연소 부의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등이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민을 바라보고 정책과 비전으로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북구 최대 숙원 사업인 호남



고속도로 용봉 IC 우선 개통과 북구·답양 통폐합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어 ▲광주 지역 역세권 개발 ▲첨단단지와 본촌단지 확대 ▲광주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평화공원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종진, 출판기념회 성료… "광산의 엔진 되겠다"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서종진 전 광산부구청장(현 광산미래포럼 이사장)이 1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정답이다'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서종진 전 광산부구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광산구는 광주 발전의 신성장동력도시"라면서 "광산의 심장인 엔진이 되고자 한다"며 강한 출마의지를 표명했다.

광산구 동곡 출신인 서 전 광산부구청장은 내무부 간사관실과 광주시 교통건설국



장 등 지방과 중앙공직을 두루 경험한 공직자 출신이다.

이날 행사에는 윤장현 새정치연합 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주선·김동철 국회의원, 최성룡 전 소방방재청장 등 지역민 2000여명이 참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 ① 연수일정(2014년 제12기)

- 개강일시 : 2014. 3. 3(월) 초급야간 18:30  
중급야간 18:3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4. 2. 3(월) ~ 2014. 2. 28(금)

- 수업기간 : 2014. 3. 3(월) ~ 2014. 6. 20(금)(총 90시간)

- 수 강 료 : ₩360,000

- 모집인원 : 초급 야간 : 30명(민간자격)  
중급 야간 : 30명(국가공인자격-민간자격도 동시취득)

- \* 기초기 부족하면 초급반에 지원되어, 수료시 중급반에 자동 진급하고  
초급반 수료 척도의 기초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중급반에 지원 할 수 있음

- \* 수업기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초급·중급 모두 18:30 ~ 21:30(3시간 수업)

- \* 수료 후 특전  
- 초급·중급 연수과정 수료증 /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초급 수료증 / 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 협의회 시행  
한문지도사 시험 응시

- 중급 수료증 / 국가공인 2급이상 한문지도사 시험응시

- 국가 공인 기관 시행

- 연수과정 중 / 국가공인 한자 교수 취득 기회